



4월의 뜨거운 그라운드. 24일 잠실에서 열린 KIA-LG전은 토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성적에서의 약진과 함께 관중이 폭발한 LG는 8개팀 중 첫 20만 관중을 돌파했다.

### 벌써 21만...LG '만원의 행복'

경기력 급상승 이틀연속 매진행진  
평균관중 2만명 육박 70%나 늘어

“확실히 성적이 좋으니 팬들이 많이 오는 거겠죠? LG가 더 잘 해야 할텐데...”

LG 팀내 최고 베테랑인 이병규(37)는 24일 경기를 앞두고 일찌감치 관중석을 메운 팬들을 보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병규의 말처럼 LG가 8개구단 중 처음으로 올시즌 홈 20만 관중을 돌파했다. 23일에 이어 24일 잠실 KIA전까지 이틀 연속 2만7000석 매진사례였다. 이날 현장판매분 대표를 시작한 지 23분 만에 입장권이 모두 팔려나갔다. LG는 올시즌 4번째 매진을 기록하는 등 11경기 만에 20만 관중을 넘어 총 21만33명의 관중수를 기록하게 됐다. 경기당 1만9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6%의 증가율. LG는 지난해 홈 15경기를 치렀을 때 20만 관중을 넘어섰다. 20만 관중 돌파까지 지난해보다 4경기 단축한 셈이다.

LG가 올시즌 폭발적인 관중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경기력이다. 23일까지 18경기를 치르면서 10승8패로 3위에 올라 있었다. 지난해 18경기를 치른 시점(9승8패1무 4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7일 대전 한화전 승리로 1997년 7월 16일 이후 5016일 만에 1위로 올라선 사실이 LG팬들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선발투수들이 안정되면서 허무하게 패하는 경기가 거의 없다. LG팬들로서는 충분히 포스트시즌 진출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일정 덕도 있었다. 지난 주말과 이번 주말 흥행 보증수표인 롯데와 KIA를 홈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당 평균관중수가 2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심장하다.

정철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 | 김문규 기자 mikang@donga.com 트위터 @mikwang

## 쫓다하면 결승포...곰 해결사 대폭발



토요일은 결승 만루포, 일요일은 결승 3점포. 두산 최준석(왼쪽)이 24일 대전 한화전 4-4로 맞선 5회초 2사 1·3루에서 우월 결승 3점 홈런을 때린 뒤 홈에서 김현수와 환호하고 있다.

대전 | 김현준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uin

### 스타플러스 | 두산 최준석

한화전 4-4 동점서 스리런 홈런  
전날 만루포 등 4연속G 결승타  
“125kg까지 다이어트 큰 도움돼”

두산 최준석(28)이 대전구장을 맹폭했다. 이를 동안 홈런 두 방으로 7타점을 쏟아냈다. 게다가 두 개의 대포가 모두 결승 홈런. 무려 4연속경기 결승타 행진이다.

최준석은 24일 대전 한화전에서 4-4로 맞선 5회 2사 1·3루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그리고 볼카운트 0-1에서 한화 구원 투수 유원상의 2구째 슬라이더(134km)가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오자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걷어 올렸다. 외야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결승 3점 아치(버거러 105m). 팽팽한 기싸움으로 치달던 경기의 흐름은 최준석

의 한 방과 함께 완전히 두산 쪽으로 넘어갔다.

뿐만 아니다. 최준석은 전날도 같은 장소에서 그랜드슬램을 뽑았다. 0-0으로 맞선 3회 1사 만루에서 한화 선발 홀리우 테폴라를 상대로 만루홈런을 때려낸 것이다. 2002년 데뷔 후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만루포가 없었는데, 올해는 8일 KIA전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만루 기회에서만 5타수 3안타 11타점. 이 홈런 덕분에 아홉수 한 번 없이 500승 고지를 밟은 김경문 감독은 “준석이 지난해에는 만루에서 병살타를 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올해는 부쩍 좋은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날 홈런은 상대의 기를 일거에 꺾어버리는 홈런이어서 더 만족스러웠다”고 기뻐했다.

20일 잠실 넥센전부터 이어온 결승타 행진이라 더 놀랍다. 두산의 5연승 중 최근 4경기에서 최준석이 방망이로 승부를 가른 것이다. 대전 2연전에서 일군 7타점을 포

함해 4경기에서 총 13타점. 두산의 12승 중 다섯 경기에서 결승타를 때려내 LG 박용택과 KIA 이범호(이상 네 개)를 제치고 이 부문 1위에 올라섰다. 반짝거리다 못해 눈이 부신 활약. 최준석은 경기 후 “스윙 자체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데 주자가 앞에 나가면 더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 운 좋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나 혼자 잘했다고보다는 앞의 타자들이 많이 살아 나가서 내게 기회를 연결해 주는 덕분에 타점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겨울부터 정지훈런까지 송재박·신경식 타격코치님이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영향을 받았다. 몸무게를 125kg까지 줄인 것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자랑했다.

“타격 기계” 김현수와 ‘두목곰’ 김동주도 대표했던 두산 중심 타선. 이제 최준석의 이름값도 점점 그들만큼 무거워지고 있다.

대전 | 배병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 빅마우스

- 500승 축하 인사하러 가야겠네. 난 50승 조금 남게 했는데. (한화 한대화 감독. 두산 선수단도 도착하자 김경문 감독을 만나러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 잊고 있었던 아픈 얘기를 굳이 꺼내시더니... (두산 김현수. 양상문 해설위원이 전날

- 실책성 플레이를 언급하며 ‘수비 좀 신경써야겠더라’고 농담하자 씩씩하게 웃으며)
- X존 있었으면 딱 그만쯤 앞에서 잡혔을 거야. 야구란 게 그래. (LG 이병규. 23일 KIA전 2-3으로 뒤진 5회 중견수 플라이는 지난해처럼 X존이 있었다면 홈런타구였다는 말에)
- 내 홈런이 약이 된 거지. (KIA 이범호. LG 박

- 현준이 경기 전 인사를 하면서 2009년 프로 데뷔전에서 홈런을 맞았던 기억을 떠올리자 그 홈런 때문에 좋은 투수로 성장했다며)
- 네 덕분에 살았다고 했죠. (롯데 홍성흔. 23일 연장 10회 역전 끝내기 안타를 터뜨린 황재균을 끌어안고 무슨 귀엣말을 했다는 질문에. 홍성흔은 9회말 2사 만루 풀카운트에서 스탠덴 삼진을 당했다)

- 머리가 괜히 큰 게 아니에요. (롯데 유격수 문규현. 23일 고의나구로 더블플레이를 시도한 것을 두고)
- 타격레슨이나 해주고 가라. (롯데 양승호 감독. 양준혁 해설위원이 인사하러 오자 조코)
- 야구도 못하는데 적게 먹어야죠. (삼성 최형우. 최근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식사도 맘 편히 못하겠다며)

### 데일리 포커스 <24일-상세기록 8면>

SK 9-7 롯데 승:글로버 패:코리 (사직)

독기 품은 SK, 5·6회 만루서 적시타행진

야구는 흐름의 종목이자 멘탈스포츠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24일 일전을 앞두고 흐름으로 치면 롯데였고, 정신력으로 치면 SK였다. 롯데는 23일 멤버 전원이 농군패션을 했고, 이대호 조정환 등 주요 선수들은 머리까지 짧게 깎았다. 그 절박함으로 연장 10회 끝내기 역전승을 얻어냈다. 그러나 24일에는 당한 SK 선수들이 독기를 품고 달려들었다. 1회부터 1번타자 정근우가 볼넷을 얻더니 바로 3루까지 나갔고, 희생플라이로 선취득

점, 분위기를 이끌었다. 5.6회 두 차례 만루에서 박재상, 최윤석이 연거푸 싹쓸이 적시타를 뽑아냈다. 집중력에서 앞선 SK가 나중에는 흐름마저 장악했다. 롯데는 모처럼 좋은 흐름을 갖고 출발했으나 타선이 터져주기 전에 코리가 먼저 무너졌고, 불펜진도 계속 추가점을 내줬다. 다만 위안이라면 이대호가 홈런 2방을 터뜨렸고, 타선이 12안타를 쳐내 이를 연속 SK 볼펜을 몰아붙이는 등 우르세로 반전된 대목이다. 사직 | 김경현 기자

넥센 6-5 삼성 승:김성현 세:송신영 패:안지만 (목동)

안지만·임현준 어이없는 폭투로 V 헌납

폭투는 투수에게 가장 기분 나쁜 기록 중 하나다. 삼성과 넥센이 3-3으로 맞선 5회말, 삼성 선발 안지만은 선두타자 김민우를 좌전안타로 내보낸 뒤 강병식 타석에서 포수 미트 아래로 빠지는 폭투를 범했다. 강병식에게는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고, 결국 유한준에게 좌익선상으로 빠지는 결승 1타점 2루타를 내준 뒤 1사 2·3루서 좌완 임현준에게 볼을 넘겨주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임현준도 좌타자 알드리지를 상대하면서 타

자 바깥쪽으로 어이없는 폭투를 저질렀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3-5로 벌어졌다. 전날까지 삼성은 18경기에서 폭투를 7개만 기록했다. 같은 18경기에서 6개의 폭투를 범한 KIA 다음으로 적은 수치. 하지만 이날은 5회 안지만과 임현준이 연속해서 폭투 2개를 범하면서 3실점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빼앗겼다. 하필이면 진감용이 12일 만에 선발로 마스크를 쓴 테라 더욱 찜찜한 실정 장면이었다. 목동 | 정재우 기자

KIA 8-2 LG 승:양현종 패:리즈 (잠실)

4번타자 정의운 침묵...힘 떨어진 LG 타선

KIA 이범호는 시즌 초반 팀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3일 1회 선제타점, 1-1 동점인 3회 결승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24일에도 중요한 한방을 쳤다. 2회말 먼저 1점을 뺏겼지만 끝내는 3회초 결승 좌완 3점 홈런(시즌 4호)을 날렸다. 19경기에 출장해 24타점으로 타점 부문 단독 1위를 달릴 뿐 아니라 홈런 공동선두까지 점령했다. 타격감이 좋던 이용규와 나지완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이범호가 결정적인 한방을 터뜨리면

서 KIA는 승수를 쌓아가고 있다. 반면 LG는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들어 타선의 힘이 떨어졌다. 안타는 나오고 있지만 변죽만 울린다. 이범호와 같은 해결사가 없는 까닭이다. 23일 잔루 10개에 이어 24일에도 잔루만 9개. 24일 3번타자 이택근이 4타수 4안타로 맹활약했지만, 4번타자 정의운이 3타수 무안타로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정의운은 4번타자로 나섰을 때 타율 0.167(18타수 3안타), 2타점에 불과하다. 정철 | 이재국 기자

두산 9-5 한화 승:이혜천 패:마일영 (대전)

승·승장구 두산...1주일간 5승 싹쓸이

개막 직후에는 기대만큼 안 풀리는 듯 했다. 외국인 투수 한 명이 무경을 열기도 전에 짐을 싸고, 원투 편치로 기대했던 김선우와 이혜천이 동반 부진했다. 믿었던 타선이 터지지 않아 영봉패를 당하기도 했다. 그 어느 해보다 두산은 우승 후보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기에 더 의외였다. 그사이 ‘라이벌’ SK는 치고 나갔다. 하지만 두산은 감행이다. 시즌이 2주차로 접어들면서 점차 궤도에 오르더니 3주차인 19일 잠실 넥센전부터 23일 대

전 한화전까지 5경기(22일은 우천 취소)를 싹쓸이 했다. 두산은 지난 시즌 딱 두 차례만 1주일 전승을 거뒀는데(7월 20~22일, 8월 10~15일) 올스타 브레이크나 비로 인해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두산 특유의 안정감이 돌아왔기에 가능한 연속 행진. 마운드는 5경기에서 평균 2.4점밖에 주지 않았고 타선은 평균 6.6점을 뽑았다. 넥센과 한화가 하위권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고무적인 일이다. 대전 | 배병은 기자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제 438회 Lotto 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6, 12, 20, 26, 29, 38  
2등 보너스 숫자: 45

1등 총당첨금: 1,291,239,400원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액	당첨금 내역
6등 숫자 일치	9명	1,377,142,167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5등 숫자 일치	41명	50,383,25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숫자 일치	1,303명	1,585,352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숫자 일치	65,010명	50,000 50,000원
2등 숫자 일치	1,081,763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회당 당첨금액 기준이며, 다중구매 시 복수인 경우 개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 추첨일: 2011. 4. 23  
•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80일까지  
• 나눔로또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6450lotto.net

• 당첨번호 1회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